

# 삶과 정서가 녹아든 무형문화재

의·식·주에 담긴 전통문화 복원한 책들에 관심 높아

무형의 우리 문화에 관심을 쏟은 책이 여럿 나왔다. '문화유산의 해'라지만 화려한 유형문화재 그늘에 가려지고, 문명화의 속도에 밀려 사라져가는 무형의 문화들이 많다. 최근 나온 책들은 우리 정신의 뿌리를 이루는 민속문화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토종연구가·교수·목수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저자들은 사실과 감상을 섞어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한편으로 뿌듯함이 엿보이는 어조로 내용을 이끌어간다. 전통문화를 꼼꼼하게 복원한 것도 관심을 끌지만, 사진기와 녹음기를 들고 직접 산골·어촌·장터를 기웃거린 현장감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 '사라지는 것들'을 돌아보며

《토종문화와 모듬살이》(학민사), 《한국의 먹거리와 풍물》(문학아카데미), 《한국의 전설기행》(한국문원), 《우리문화 이웃문화》(문학수첩), 《귀신먹는 까치 호랑이》(들녘)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곧 사라질 것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책들은 신문·잡지에 실렸던 글을 묶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우리문화 이웃문화》는 건축가 신영훈씨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 문화와 우리 것을 비교한 것. 거창하고 화려한 유형문화재보다 화덕·구들·창살·독·마당·담·신발 등 서민들의 오랜 공리가 담긴 생활문화에 중점을 뒀다.

94년 12월부터 《월간 조선》에 실었던 천소영 교수의 '전설따라 지명따라'를 엮은 《한국의 전설기행》은 전설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 역사가 담긴 무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조상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은 우리 땅 곳곳의 역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훑고 있다.

토종 동·식물과 농수산물을 연구해온 홍석화씨는 《토종문화와 모듬살이》에서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고 안녕을 비는 마을굿을 민속문화의 결정체로 본다. 남원 삼동의 굿놀이, 진도의 마을굿, 녘도의 설날 마을굿,

유형문화재의 그늘에 가려 사라져가는 무형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구들·담·신발 같은 생활문화나 화전·누룽지 같은 전통음식, 민화 속에 나타난 상징 등이 땅의 구석구석에 스민 무형문화를 재발견하는 작업이 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영등굿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준비과정부터 생생하게 옮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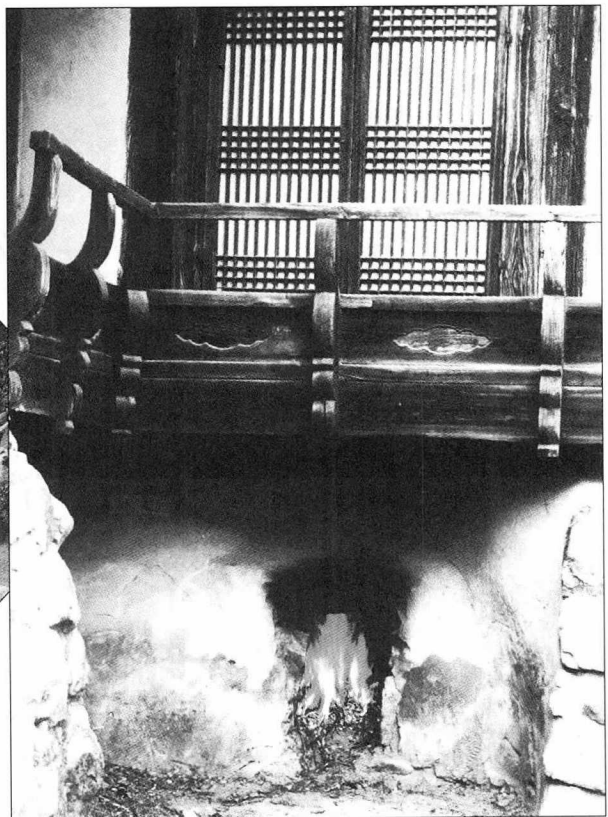
최승범 교수가 쓴 《한국의 먹거리와 풍물》은 피자과 햄버거에 잊혀진 전통음식과 공동체 문화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미나리·쑥·화전·송화·누룽지·꽃고추 등의 전통음식을 정감어린 옛 시조와 함께 소개하고 농사 일정에 맞춘 1년의 세시기와 농요를 채집했다.

미술평론가 김영재씨가 쓴 《귀신먹는 까치 호랑이》는 17~18세기 조선민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아 나선다.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작호도'는 '표범과 까치'라는 청나라의 상징체계를 빌고 있지만, 호랑이를 내세워 동이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서 저자는 이 그림이 조류를 숭배했던 알타이어족, 신시베리아 문화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기 다른 소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들 책의 결론은 비슷하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 개인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서다. 자연재해로부터 모두의 생존을 구하는 소박한 마음을 담은 곳은 자연을 공경하고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는 한바탕 놀이마당이다.

농사짓는 풍경이 사실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사람노릇에 대한 가치관까지 간결하게 보여주는 농요는 또 어떤가. "한일자로 늘어서서/입구자로 심어갈제/이 내 말을 들어보소/불별을 등에 지고/진흙물에 들어가서/이 농사를 이리 지어/누구하고 먹자하노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의 이궁이. 원 안은 전남 담양의 앞은뱅이 굴뚝. 《우리문화 이웃문화》에서.



//늙은 부모 봉양하고/어린 자식 길러내서/사람노릇 하자꾸나." 모내기할 때 부르는 농요 한 토막이다.

무등산 기슭에 흩어져 있는 평범한 바위에도 총장공 김덕룡 장군의 이야기가 따라다니듯, 전설은 하찮은 자연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을 담아 조상들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산세를 그대로 빼닮은 기와지붕의 곡선은 자연에 없는 직선으로 지붕을 만드는 일본·중국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 공동체 지향의 정서 답아

"호박 볶고 외도 썰고 물고기도 놓았는데/질그릇 옹배기엔 막걸리가 넘치누나/푸른 잔디 언덕 뽕나무 그늘 아래/여기저기 모여 앉아 농사얘기 한창일제/동쪽집 김매기는 서쪽집에 뒤졌느니/구렁논의 벼포기는 높은 배미보다 번성하고 말고/아이들은 술 돌리고 어른들은 취하여서/짧은 소매 그대로 덩실덩실 춤을 추네" 하는 장유 시조에서 자연과 인간과 노동이 한데 어우러진 정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던 문화의 일단이 엿보인다. 하늘과 땅, 사람을 그림의 주요 소재로 삼았던 민화 역시 '자연과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과 지은이의 감상이 어울린 책들 외에도 주관적 감상을 배제해 자료가치를 높인 책이 보인다. 부엌살림의 명칭과 유래·쓰임새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우리의 부엌살림》(삶과꿈)과 오신채와 육류를 뺀 재료로 우리 음식 만드는 법을 설명한 《한국사찰음식》(우리출판사)이 그것. 앞의 책은 배화여전 전통조리과 윤숙자 교수와 《한국의 전통주》를 써 전통문화에 관심을 보인 박록담 시인이, 뒤의 책은 승려였다가 지금은 산채 전문점을 하고 있는 김연식씨가 써 신뢰감을 높였다.

하지만 사람이 없어 냉수를 떠 놓고 이장 혼자 지냈다는 마을굿 소식, 제물이 될 소를 잡는 규모가 나라 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적 없다는 녘도 마을굿의 뒷얘기는 무형문화의 암울한 운명을 감지케 한다.

그뿐인가. 전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저자들의 발길은 허물어지고 날아가는 곳 앞에서 멈춘다. 도미 전설이 얽힌 나루터는 흔적만 남아 있고, 우륵의 전설이 사라진 의림지, 말라버린 송강정 밑의 강은 무형문화의 이해와 전승이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연과 유형문화를 보존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이현주 기자